No.114

Japan Weekly Digest

2012. 1. 14. ~ 2012. 1. 20

□ 금주의 이슈
- ◦ 유로화에 대한 엔고행진의 주름살
- ◦ 셸 가스 개발경쟁, 일본에 기회 제공

□ 일본기업전략
- ◦ 대형일용품메이커들, 중저가상품으로 아시아시장 공략
- ◦ 엘피다, 미국기업과 자본·업무제휴 모색

□ 경제산업성 동향
- ◦ 미얀마에 대한 무역보험, 8년 만에 재개
- ◦ 전력원가 산정방법 개선, 인건비 상한 설정

□ 보고서 리뷰
- ◦『강건한 사회시스템과 산업구축』, resilience economy 연구회 산업경쟁력 간담회, 1월19일

KJE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4-9888)

◆ 금주의 이슈

□ 유로화에 대한 엔고행진의 주름살

○ 유럽의 재정위기문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일본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음. 유럽재정위기로 한 때 유로당 97엔 이하로까지 하락하는 등 유로화에 대한 엔고현상이 지속

○ 특히 식료품시장을 중심으로 최근 유로저가세일이라는 광고문구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 유로저가세일대상에는 식료품만이 아니고 유럽산 명품등 유럽으로부터의 수입품 대부분이 포함

○ 그런가하면, 대유럽수출상품은 유로화 하락의 타격을 크게 받고 있는데 업종,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유로당 97엔정도의 유로화 가치하락은 일본 수출기업들이 상정하고 있던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는 것임

○ 자동차, 전기 관련 대형 수출기업들이 상정하는 유로화 환율은 유로당 105엔~110엔정도, 유로화 가치가 97엔이하로 급락함에 따라 이들 기업들은 수입업계와는 대조적으로 울쌍

○ 전문가들은 달러화 하락보다 유로화 하락이 일본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크며, 유럽재정위기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유로당 90엔까지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

□ 셸가스 개발경쟁, 일본에 기회 제공

○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스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셸가스 등장이 일본에 낭보가 되고 있는 동시에 개발확대에 따른 과제도 표면화되고 있음

○ 이미 셸가스의 전략적 가치를 보고 개발경쟁에 뛰어든 기업들 외에도 원전사고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후발기업들이 속속 개발경쟁에 참여하고 있음

○ 이토츄상사가 미국 펀드사와 공동으로 미국의 석유·가스회사를 70억 달러에 매수한데 이어, 닛키(日揮)도 캐나다 서부에서 3광구 권익을 530억 엔에 취득. 미쯔비시상사는 동경가스 등과 캐나다에서 가스를 LNG로 가공, 일본 등 아시아로 수출, 마루베니도 미국으로부터의 수출을 검토 중

○ 미국은 원칙적으로 FTA체결국에 한하여 LNG수출을 허용하고 있어 일본의 TPP참가 이점이 매우 큼. 그러나 셸가스 생산은 종래의 가스개발과는 다른 기술 및 노하우가 필요, 기술자 부족과 채굴시 사용하는 화학 물질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으로 환경파괴 비판도 예상

◆ 일본기업전략

□ 일본의 대형 일용품메이커들, 중저가상품으로 아시아시장 공략

○ 일본의 대형 일용품메이커들이 아시아시장에서 중간소득층을 상대로 종래 보다 싼 가격으로 상품을 투입. 카오우(花王)의 경우 내년부터 중국에서 20∽30% 싼 종이기저기 및 의료용세제 등을 발매

○ 시세이도는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보급가격대의 화장품을 동남아시장에 까지 판매를 확대, 지금까지는 내수용 상품과 별 차이가 없는 상품을 고소득층을 상대로 판매해왔으나 현지생산을 확대, 성장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

- 시세이도의 경우 특히,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Za」를 금년부터 동남아시아에서 본격적으로 판매, 화장품에서 메이크업에 이르기까지의 종합브랜드로 가격은 1,000엔 전후가 중심. 대일 수출용 상품의 공급거점인 베트남 공장에 새로운 라인을 도입, 태국을 비롯한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에 판로를 확대할 예정

○ 일본종합연구개발기구(NIRA)에 따르면, 아시아 주요 10개국·지역의 중간층은 앞으로 2020년에 17.4억명으로 2008년대비 2배나 늘어날 것인 바, 이같은 시장잠재력을 노려 미국의 P&G등 세계기업들이 저가 상품분야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일본메이커들의 경우 고급품분야로부터 진입하는 사례가 많으나 현지기업이나 한국들의 추격으로 저가격경쟁에서 패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지생산을 확대, 가격경쟁력을 강화에 나섬

○ 그러나 아시아에 생산거점을 늘림으로써 일본내 공장을 포함한 전면적인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

□ 엘피다, 미국기업과 자본·업무제휴 모색

○ 반도체 부품 D램 분야에서 세계 3위인 일본의 엘피다 메모리사가 세계 랭킹 4위인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 자본·업무제휴를 모색. 엘피다는 최근 자금난에 직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재건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엘피다는 마이크론과의 제휴로 D램의 세계시장점유율을 20%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려 세계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에 이은 제 2위의 기업으로의 성장을 목표

○ 엘피다는 리먼쇼크 이후 경영악화로 2009년에 산활법(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상의 구제대상기업으로 인정받아 일본정책투자은행으로부터 4,000억엔,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1,000억 엔의 자금지원을 받은 바 있음

◆ 경제산업성 동향

□ 미얀마에 대한 무역보험, 8년 만에 재개

○ 에다노 경산대신은 미얀마에 대한 포괄적인 경제 지원책을 발표. 자원개발 및 인프라정비에 이용할 수 있는 중장기 무역보험 8년 만에 재개, 향후 2년간 5억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일본은 미국·유럽보다 먼저 미얀마에 경제 지원을 실시 하게 됨

○ 경산대신의 미얀마 방문에는 도시바, 미쯔이물산 등 약 20개 기업들이 동행, 對미얀마 투자에 큰 관심을 보여 향후 일본기업들의 미얀마 투자가 확대될 전망

○ 포괄적인 지원책으로는 인프라 정비·산업육성과 에너지·광물자원 협력 등 2개 분야. 미얀마 공장에 기술자 파견, 전력·수도·교통 등 인프라 정비를 위한 사업화 조사, 식품가공 및 농업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대화를 설치키로 합의, 이외에 제품수출에 대한 단기무역보험도 농업기계 등의 분야에 한하여 기준을 완화

○ 자원협력은 희귀금속 개발을 위한 공동지질조사를 비롯, 석유·천연가스 분야의 투자 및 인재육성, 재생가능에너지의 기술협력에 합의

○ 對미얀마 투자는 정치적 위험에 더하여 전력공급난, 무역·투자 관련 제도의 미정비 등의 제약요인 때문에 일본 진출기업은 12개에 불과. 그러나 미얀마의 인구가 6,200만명이나 되는 만큼 일본기업들은 풍부한 노동력이나 소비시장으로서 미얀마에 기대를 걸고 있음

□ 전력원가 산정방법 개선, 인건비 상한 설정

○ 경제산업성은 가정용 전기요금 결정시 근거가 되는 전력회사의 원가범위를 축소키로 함. 현행 규정에 전액 산입을 인정하고 있는 인건비에 상한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 전력요금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동경전력 등 전력회사에 비용절감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

○ 전기요금은 인건비 등 비용에 일정한 이익을 포함시킨 총원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인건비는 현재 전액 원가산입이 가능함. 일본의 경우 전력회사의 급여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기 때문에 원가산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한을 설정하고 있음

○ 인건비 외에 광고선전비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가산입을 인정하지 않고, 발전소가 위치한 지자체 등의 기부금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

◆ 보고서 리뷰

『강건한 사회시스템과 산업구축』

resilience economy 연구회 산업경쟁력 간담회, 1월19일

□ resilience economy : 복원력이 높은 강인한 경제

○ 리스크 발생으로 사회시스템이나 사업의 일부기능이 정지되더라도 전체로서 기능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강인함을 의미

○ 단순한 방재나 사업영속계획(BCP)이 아닌 국가전략, 사업전략의 일환으로 사회시스템이나 기업경영에 투입하여 국가나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서 산업계, 정부·지자체, 인프라·유틸리티 부문 등 3개 부문이 연대하여 resilience를 높이는 것이 중요

○ 리스크 요인으로는 자연재해나 사고뿐만 아니라 테러, 정치적 상황, 법·규제의 변화, 환율변동 등 사회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이 대상이 되는 바, 이에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정책 제시

□ 위기대응능력 강화

○ 사업계속 대책 추진 : 사업계속 강화, 시스템적인 접근, 서플라이체인의 실태파악과 리스크대책, 사회 인프라 관련시설의 사업계속, 금융 면에서 인센티브 활용 등

○ 비상시 민간자산의 효율적 활용 : 공공기관 정보와 민간정보의 연대, 물류관리, 배송에 민간시스템·기술의 활용 등

□ 강건한 사회 인프라 구축

○ 인명보호와 직결된 사회 인프라 정비 : 인명 보호기능을 가미한 사회 인프라 평가, 네트워크에의 루프·대체 활용, 구조강화기술개발 촉진 등

○ 고령화 사회 인프라에 대한 대응 강화 : 계획적인 갱신·보수의 고도화, 라이프사이클 비용 절감, 유지관리기술의 고도화 등

□ 저탄소화·안정적 공급·경제성의 균형 있는 에너지정책의 조기 수립

○ 종합에너지정책의 조기 수립 : 에너지의 다양화, 광역 에너지네트워크 추진 등

○ 자립분산형 에너지 보급과 재생가능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의 다양화 : 스마트 그리드·코디네이터·축전지 등 관련기술 개발, 에너지의 이용범위 확대, 수소에너지 등

○ 에너지공급 강화 : 에너지공급망의 강화, 비상시 에너지배분의 우선순위 설정 및 배분방식 구축

□ 통신 인프라의 강화, 정보의 안정성과 활용

○ 통신 인프라 강화 : 지진이나 정전에 견딜 수 있는 공중망 구축, 인터넷망 개선, 위성통신, 무선통신시스템 정비 등

○ 정보의 안전성 확보와 비상시 정보 활용 : 데이터센터의 강화, 데이터의 back-up, 지자체의 정보거점 구축과 광역연대체제 정비, 사이버위기 대책 등

【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

(1)『아시아기업의 유럽비즈니스전략』, 일본무역진흥회(JETRO), 1월14일
*출처:http://www.jetro.go.jp/jfile/report/07000793/europe_business.pdf

(2)『확대되고 있는 일본기업들의 저축초과』닛세이기초연구소, 1월14일
*출처:http://www.nli-research.co.jp/report/econo_letter/2011/we120113.html

(3)『사회보장분야에서 기술진보, 산업발전과 경제성장』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1월17일
*출처:http://www.ipss.go.jp/syoushika/bunken/data/pdf/19563703.pdf

(4)『강건한 사회시스템과 산업구축 : resilience economy 연구회 중간보고서』산업경쟁력 간담회, 1월19일
*출처:http://cocn.jp/common/pdf/thema47-s.pdf

(5)『반도체전략프로젝트「경쟁력강화를 첨단연구개발」:중간보고서』산업경쟁력 간담회, 1월19일
*출처:http://cocn.jp/common/pdf/thema41-s.pdf

(6)『글로벌 리더 인재의 육성과 활용연구회 : 중간보고서』산업경쟁력 간담회, 1월19일
*출처:http://cocn.jp/common/pdf/thema46-s.pdf